

매니큐어로 그린 그림전 여는 정산 스님

사찰음식전문가

12월 19~25일 인사동 공화랑서



“사람이 먹는 음식을 장만하는 행위나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나 결국 둘 다 부처의 마음, 즉 본래의 불성(佛性)을 찾아가는 수행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얻어낸 산물인 만큼 이번 전시 작품들도 기교와 형식을 내세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욕심없이 그리고자 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에 ‘사찰음식의 모든 것’을 연재하고 있는 사찰음식 전문가 정산 스님(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이 매니큐어를 재료로 그린 그림들을 한데 모아 첫 개인전 ‘관조+명상’을 12월 19~25일 인사동 공화랑에서 연다.

이번에 벽에 걸리는 작품들은 주로 꽃을 주제로 삼아 도자기, 타일, 나무그릇 등에 형형색색의 매니큐어로 그린 것들이다.

“스님이 웬 여성화장품인 매니큐어로 그림을 그릴까?” 환갑인 정산 스님이 매니큐어를 사 모으자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의아해했다. 뭔가 사연이 있을 법하다. 5년 전이다. 정산 스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도자기를 깨트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리하던 끝에 매니큐어를 떠올렸다. 깨진 도자기의 상처 자국을 가리기 위해 매니큐어로 무늬를 새겨보았다. 또 그것을 계기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매니큐어를 붓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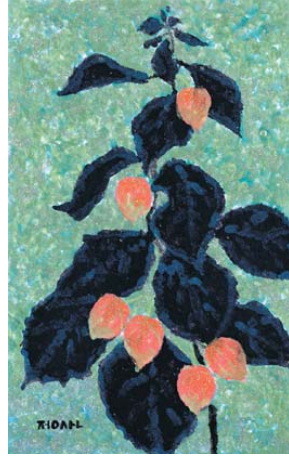
발라 도자기, 타일, 나무 그릇 위에 꽃을 그려 꽃밭을 만들고 나무를 그려 숲을 만들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시작된 그림 그리기지만 비범한 그의 재능을 알아본 인사동 화랑가에서 전시 요청이 잇따르고 있으며, 인사아트센터에서는 벌써 내년 전시일정까지 잡아놓았을 정도다.

“어린 시절 그림 잘 그리는 칭찬을 받아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부산 범어사에 입산했는데 그때부터 화가의 꿈을 간직한 채 다양한 그림을 그렸어요.”

정산 스님은 “그림을 그리면 그림수록 우연히 발견한 매니큐어의 독특한 질감과 색감이 매료됐다”며 “매니큐어는 섬세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들이 멋을 내는데 사용하는 화장품이어서 세련되고 절제된 색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 “인간의 본성 역시 속세의 번뇌에 시달리고 치여서 있고 지낼 뿐 존엄하고 아름답고 귀하다”며 “야생에 핀 들꽃 그림들을 통해 부처님 마음처럼 순수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려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시작품 54점 대부분은 꽃과 나무들이다. 사찰음식 관련 책을 펴내는 과정에서 봐왔던 수많은 꽃들의 아름다움을 스님 눈에 띄어났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는 그것들을 다시 되새김해 매니큐어라는 독특한 오브제로 다양한 화면에 옮긴 것이다.



미술평론가 김광명 교수(숭실대 예술철학과)는 “예술행위에는 최소한의 기교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고유한 미의식은 무기교의 기교”라며 “정산 스님의 작품은 무욕의 경지, 그리고 그 맛(味)과 아름다움이 삼위일체가 되어 새로운 미학적 접근 방식으로 자리매김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평했다.

정산 스님은 40여 년 전부터 전국 사찰에서 사라져가는 사찰음식의 전통을 잇기 위해 별좌(음식을 만드는 책임자)나 원주(절 살림을 총괄하는 직책) 등을 맡으며 사찰음식을 찾아내 기록하고, 신민이나 잡지 등에 연재하며 이를 세상에 알려왔다.

스님은 또한 1981년 중앙일보와 TBC가 공동 주최한 ‘전통음식 발굴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저서로는 <산채요리> <한국 사찰음식> <눈으로 먹는 절음식> 등이 있다. (02)735-9938

글=김주ыл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천한봉 도예입문 60주년 도예전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한가람미술관서 열려

“나는 흙이 좋다. 흙이 지닌 본질적인 생명력이 좋고 세상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좋다.”

흙과 함께 평생을 살아온 경북 문경을 대표하는 불자 도예가 천한봉(74) 명인이 도예 입문 60년을 맞아 기념전을 개최한다.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리는 천한봉 도예 60년전은 ‘사람은 그릇을 만들고 그릇은 사람을 만들고’라는 주제로 천 명인의 작품과 제작자의 작품 50여점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자신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 두 딸 천명숙, 천경희씨와 20여 명의 제자들이 함께한다. 전시는 1940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단위 6개 부분으로 나누어 작품을 선보이고 실매와 성공을 거듭했던 유약과 성형과정에서 사용했던 도구, 작업 모습을 담은 기록사진도 벽에 걸린다.

천한봉 명인은 일본의 국보 및 중요 문화재가 된 조선다완(찻사발)을 오늘날 가장 완벽하고

훌륭하게 재현해 내는 도예작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한국, 일본 등에서 120여 차례 전시회를 가졌다. 1995년에는 대한민국 도예 명장으로 선정됐고 2006년에는 경북 무형문화재 사기장으로 지정됐다.

특히 아시아 최고의 인물로 선정돼 일본 국영 방송인 NHK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 방영된 바 있고 일본 천황으로부터 일본문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등 국보급 도예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그는 도예 입문 60년을 맞아 이 같은 자신의 이력을 담은 <그릇과 나의 인생>(호미 펄벵)이란 회고록도 펴냈다. 천 명인은 이 책에서 우리 그릇의 가장 큰 매력인 자연스러움이고, 화려하지 않은 소박함, 자연의 언어를 대신하는 꾸밈없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02)580-1490

김주ыл 기자



詩書로 떠나는 임지기행 ㉔

소요산 자재암



자재암(自在庵)-원효 대사가 요석공주와 더불어 절을 짓고 머무르며 설총을 키웠다는 설을 뒷받침하듯 원효대 요석대 등으로 불리는 암벽사이 비좁은 공간에 자리하고 있다.

소요산 자재암에 들어 원효스님 흔적을 더듬다 보면 사람이란 본시 아픔으로 조립된 외판집이라는 걸 아실거예요.

먼 신라적의 하룻밤 풋사랑에 몸을 가두고 지금껏 번뇌하는 원효를 보면 인연이란 본시 바위보다 단단한 아픔이란 걸 아실거예요.

문화소식

△ 흥법사, 청술 합창단 창단 음악회

12월 13일, 금정문화회관 대강당
부산 흥법사 (사한나래문화재단 이사장 심심) 청술합창단(단장 장옥남)이 12월 13일 오후 7시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창단 첫 음악회를 개최한다. 흥법사의 개원 4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이자 합창

단 창단을 공식발표하는 자리이다.

전불가로 새로운 인생을 맞고 있다는 합창단원들의 나이는 평균 60세, 실버합창단으로 불리기도 한다. 부처님께 음성 공양 올리는 것이 가장 기쁘다는 그들은 노후 설계를 언급보편이 아닌 전불가로 다지고 있다. 앞으로 청술합창단은 사회복지 및 양로원, 병원 등에서 음성공양으로 봉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심심 스님은 “흥법사 개산 4주년을 축하하고 청술합창단 창단을 세상에 알리는 이번 음악회를 맞아

모든 단원들에게 축하와 따뜻한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051)508-0345
하성미 기자

△ 부산불교문인협회 실상문학상

부산불교문인협회(회장 최진호)가 주최하는 실상문학상 운영위원회(이사장 혜종)가 제10회 실상문학상 분상에 수필가 이병수(80·사건 원쪽씨, 우수상에 시인 손애라(52·사건 오른쪽씨)를 각각 선정하고 11월 28일 부산일보 10층 대강당에서 시상했다.

실상문학상 심사위원들은 “<보람 속의 회오> 등 5권의 수필집을 낸 이병수씨의 작품은 감정적, 감성적 표출을 지향하고 교육적 효과를 위해 일상사의 다양한 주제를 중후한 그의 필체로 담아내고 있다”며 심사평을 말했다. 시인 손애라씨의 수상작 <나의 속부

쟁이>는 “절제와 성찰, 인고의 미력을 잘 표현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하성미 기자

△ 제1회 범어사 청년회 송년 음악회

부산 범어사불교청년회(회장 박기진)는 청년회 활동과 자선기금 마련을 위한 송년 음악회를 12월 9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개최한다. 불교 중창단 ‘청공’의 8명의 성악가가 출연한다. 최백송의 판소리, 김경보의 피아노 독주도 마련된다. (016)570-4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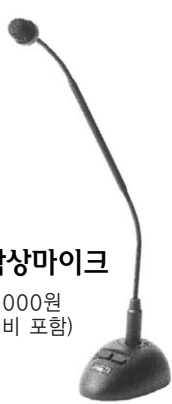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탠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 고성능 탁상마이크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 지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탠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 일반 마이크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양,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특징 :
지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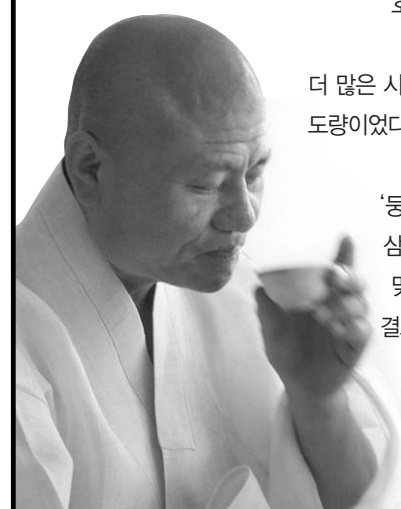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20년간 법당보다 병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효종 스님의 가슴속에 묻은 남겨진 사연들...

동지속의 대화



호스피스 활동과 간병인 봉사활동을 이끈고 있는
효종 스님은 지난 20년간 법당보다 병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스님에게 병실은 법당이고 병원은
도량이었다. 그리고 함께 간병인 봉사를 하고 호스피스 활
동을 하는 불자들이 도반이었다.
'동지 속의 대화'는 바로 효종 스님이 병원을 도량
삼아 수행하며 이어온 인연들의 이야기다.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의 마음을 극적으로 만드는 일이
결코 쉬울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책에 담겨진 이야
기들은 감동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동
시에 전해준다.



- 현대불교신문 -

신국판 / 10,000원

현대불교 (051) 244-1251
(02) 2198-5151